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방안과 한국낙농발전 및 생산자(낙농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이광용 / 본회사사



수입의 문호가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수입 유가공품의 수입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시유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행 위생 수준에 따르면 등급별 차등 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원유의 세균수 관련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체세포 관련 위생 수준은 그다지 큰 개선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등급별 차등 가격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원유가격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의 배경



내 낙농산업이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원유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유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국 식품 개발원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입의 문호가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수입 유가공품의 수입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시유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위생 수준에 따르면 등급별 차등 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원유의 세균 수 관련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체세포 관련 위생 수준은 그다지 큰 개선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등급별 차등 가격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연구원의 연구서는 낙농현장의 이해 정도와 통계 인용(생산비 등) 전문화를 강조하며 컨설팅 전체가 소외된 정책 등, 그래서 발생된 농촌의 부채 및 연대 보증의 구조적 현실 등이 연구의 밑바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 유질의 개황

가. 원유 차등 가격 제도의 역사

원유 가격 및 유지방율에 따른 가격 변동 현황

(자료 : 농림부 낙농편람 2000)

실시기간	kg당 가격	등차가격	비 고
'73. 1. 1~'73. 7. 10	67.5	1.15	유지방 차등가격제 실시
'73. 7. 11~'74. 4. 7	75		
'74. 4. 8~'74. 12. 17	90		
'74. 12. 18~'75. 12. 31	110	2.20	유지방 3.7까지만 적용
'76. 1. 1~'76. 10. 31	135	2.20	
'77. 1. 1~'77. 12. 31	150		
'78. 1. 1~'79. 1. 31	167	5.0	유지방 상한선 3.8
'79. 2. 1~'79. 12. 10	209	6.0	
'79. 12. 11~'80. 2. 1	249	7.3	유지방 상한선 3.9 하한선 2.8
'80. 2. 2~'81. 5. 31	266	7.8	유지방 상한선 4.0
'81. 6. 1~'85. 4. 30	313	7.8	유지방 하한선 3.0
'85. 5. 1~'89. 3. 31	322	9.4	
'89. 4. 1~'91. 6. 30	364	10.7	유지방 상한선 철폐 등차 23.5원
'91. 7. 1~'93. 5. 31	383	11	유지방 하한선 등차 26.5원
'93. 6. 1~'00. 12. 31	394	11	

량을 늘리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지방율에 따른 차등 가격 제도를 시행

나. 원유의 위생 등급제

우리나라에서 원유 위생등급 제도가 시행된 것은 '93년 6월, 세균수 5등급, 체세포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가격제 실시

2. 원유가격 체계 개선 방안의 특징

가. 유지방 4.3이상 인정 폐지

식품관리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고유지방 원유는 원유 가격만 상승케 하여 유지방만을 고려한 원유가격산정 체계에 대한 유업체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유지방율이 높은 우유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방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사료 급여로 젖소의 경제적 수명을 단축시켜 경제적 수명 3산이상 이 되어야 함에도 특수사료 급여로 2.34산으로 조사되어 낙농업의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사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필자는 이해되지 못하며 경제적 수명 단축요인 또한 다른 요인이 더 많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 의혹이 남는다.

원유 위생등급 및 원유가격 조정 내역

(자료 : 농림부 낙농편람 2000)

시행일	세균수 / ml	차등금액	체세포수 / ml	차등금액
1993. 6. 1	1등급 - 10만 미만	+39	1등급 25만 미만	0
	2등급 - 25만 미만	+16	2등급 50만 미만	0
	3등급 - 50만 미만	+8	3등급 75만 미만	0
	4등급 - 100만 미만	0	등 외 75만 초과	-11
	5등급 - 100만 초과	-11		
1995. 10. 16	1등급A - 3만 미만	+52	1등급 20만 미만	0
	1등급B - 10만 미만	+41	2등급 40만 미만	0
	2등급 - 25만 미만	+17	3등급 75만 이하	0
	3등급 - 50만 미만	+9	등 외 75만 초과	-11
	4등급 - 100만 미만 등 외 - 100만 초과	0 -31		
1996. 7. 1	1등급A - 3만 미만	+43	1등급 20만 미만	+30
	1등급B - 10만 미만	+32	2등급 50만 미만	0
	2등급 - 25만 미만	+10	3등급 60만 이하	-11
	3등급 - 50만 미만 4등급 - 50만 초과	0 -40	4등급 60만 초과	-30
1998. 1. 1	1등급A - 3만 미만	+51	1등급 20만 미만	+30
	1등급B - 10만 미만	+38	2등급 50만 이하	0
	2등급 - 25만 미만	+10	3등급 50만 초과	-30
	3등급 - 50만 미만 4 등급 - 50만 초과	0 -83		
1998. 7. 1	상 동		3등급	-60 -> -60
1999. 10. 1	상 동		3등급	-60 -> -30

우리나라에서 원유의 유질에 따라 차등 가격을 지불한 것은 70년대 유지방율에 따라 유대를 차등 지급한 것이 효시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77년부터 임. 당시 원유에 가수하여 납유

나. 위생 등급의 차등 가격 강화

위생등급의 차등 가격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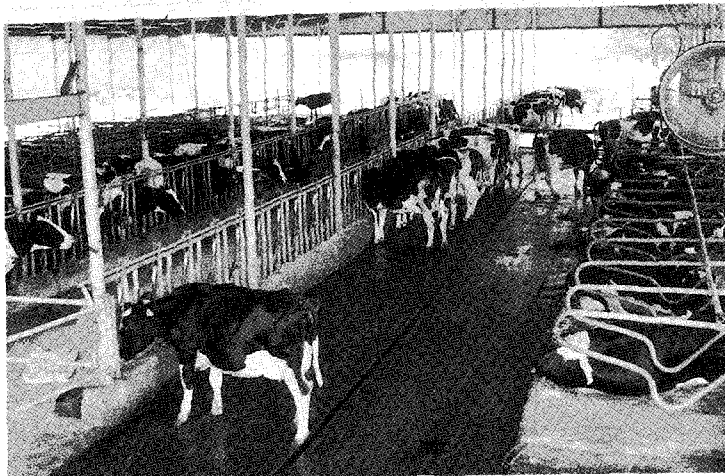
원유가격산정체계 변경에 대한 올바른 방향

으로 세균등급은 많은 향상을 본 반면 체세포 위생등급은 인센티브가 등급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환경적 요인, 기계적 요인, 착유인의 착유 방법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개선은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할 한다. 인센티브를 높이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패널티 대상이 되는 체세포의 위생기준이 세계 낙농국들에 비해 강화되고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75만까지 정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이며 세계 낙농국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학자들간에도 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초 개선 방안을 연구한 식품관리 연구소에서 인정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출수를 줄이는 방식의 위생등급기준은 자칫 소지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체세포는 젖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유방염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올바른 지식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위생등급의 올바른 이해

세계 낙농국들의 기준을 참고하자. 그러나 과도한 체세포의 발생은 생산자 스스로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자기 목장 기준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생산자(낙농가) 수익과 관계

가. S우유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체세포 30만 미만의 년중 평균 비율은 전체의 42.63%이다. 개선을 요하는 52.37%는 개선을 하기 위해 환경개선, 착유기등 기계 보수 및 교체, 착유 인원의 보강등이 요구 되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센티브의 높힘은 결국 1등급 출현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생산자(낙농가)는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나 개선하기 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특히 기계의 부품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고가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낙농을 하면 크게 이익이 있는 듯 오해하고 있다.

'98년 1월 원유가 인상 이의 4년째 원유가는 동결되었다. 특히 고능력으로 개선함으로써 종래 벗짚과 야초, 엔시레이지에 의존하던 사양 방식 또한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질 좋은 조사료는 필수적인 사항인데도 국내에서는 불행하게도 종축개량처럼 자금 조사료의 개선 연구가 뒤 따르지 못하므로 수입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어 경영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유업체는 수지 악화를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원유가격의 인하에서 찾으려 한다. 생산자인 낙농가는 위생등급의 불량소 도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소

값이 하락하는 현재 축산 농민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보충할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나. 낙농산업과의 관계

위생 등급의

금번 낙농 진흥회의 원유가격 체계 개선 방안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입 유가공품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유 위생등급의 개선은 소비자가 인정할 때에 유효할 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부터 소비자의 요구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위생등급의 패널티를 강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여기에 고지방을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가공업체의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되는 셈이다.

차등 제도의 패널티 강화는 위생등급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급진적 위생등급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국내산 원유의 우수성을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인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는 광고에 대단히 의존적이다. 현재 원유 유질에 관해서 광고에 배려할 유업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현 자조금 제도의 거출 금액은 너무도 적다.

자조금의 혜택은 1차적으로 유업체가 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자조금제도의 협조는 부정적인 것이 낙농 현실이며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 유업체의 동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생등급 불량소의 도태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원유 생산량도 감소하리라는 예측이다. 원유 생산량의 감소는 결국 수입 유가공품의 수요를 요구할 뿐이라

는 염려를 안 할 수 없다.

소비자의 국내 원유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미지수이고 원유 생산량의 감소로 수입 분유의 증가 현상만 있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그만큼 위축되고 이농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리란 조심스러운 걱정이 앞설 수 있다.

결론

금번 낙농 진흥회의 원유가격 체계 개선 방안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입 유가공품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유 위생등급의 개선은 소비자가 인정할 때에 유효할 뿐이다. 소비자는 광고에 의존적이므로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금액 또한 현재의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부터 소비자의 요구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위생등급의 패널티를

강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여기에 고지방을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가공업체의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되는 셈이다. 유업체들은 연중 사용하는 제품 광고에 약 1,900억원을 쓴다. 이 중 일부는 자조금으로 사용되어 국내 원유의 우수성과 우유의 본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종축이 개량되는 만큼 국내 조사료도 개발되고 생산 농기계의 보조 제도의 유지만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개발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옳다. 또한 도태되고 있는 소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 방안이 뒤따라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원유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만큼 소비자 또한 유가공업체의 경영 수지의 악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4년간 동결된 제품 값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허용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본다.

(필자연락처 : 018-250-8198)

